

청소년의 부모지지와 진로성숙의 관계에서 자아개념의 매개효과: 잠재성장 모형을 중심으로*

전 혜 영¹ · 박 재 국²

¹부산대학교 교육발전연구소 전임연구원, ²부산대학교 특수교육학과 교수

The Mediating Effect of Self-concep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Support and Career Maturity of Adolescent: Focusing on the Latent Growth Model

Jeon, Hye-Yeong¹ · Park, Jae-Kook²

¹Pusan National University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²Pusan National University, Dept. of Special Education

〈Abstract〉

Purpose: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s of self-concept as a mediating effect on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parent support and career maturity from the 1st grade of middle school to the 1st grade of high school using the 3rd to 6th data from the Korea Education Development Survey of the Korea Education Development Institute. **Method:** The subjects of the analysis were 5,377 adolescents who responded to the 3rd to 6th parent support, career maturity, and self-concept scale. As an analysis method, Mplus was used to analyze the multivariate latent growth curve model. Through the analysis, it was verified whether there was a longitudinal mediating effect from first grade of middle school to first grade high school. **Results:** The initial value of self-concept has a partial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itial value of parent support and the initial value of career maturity, and the initial value of the self-concept is completely mediated by the rate of change in parental support initial value and career maturity.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 rate of change in self-concept was completely mediated by the rate of change in parent support and the rate of change in career maturity. **Conclusion:** Based on these results, It was confirmed that parental support was not a factor influencing career maturity. However, it is predicted that adolescents need parental support because they can influence self-concept. Therefore,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programs and education for the formation of self-concept and career development in adolescence are important.

Key words : self-concept, parents support, career maturity, latent growth curve model

* 본 연구는 2019년도 한국교육중단연구 발표자료를 수정한 것으로, 토론해주신 임현정 교수님과 심사위원께 감사드립니다.

Corresponding Author: Park, Jae-Kook. Pusan National University, Dept. of Special Education, Busandaehakro, Jangjeondong, Busan, Korea, e-mail: pj006@daum.net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소년기는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맞춰 진로를 선택하고 찾아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진로를 선택할 때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잘 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하면서도 성적에 맞춰서 상위 학교에 진학하게 되고 이것이 직업으로 연결된다. 직업에 대한 진정한 고민은 성인진입기인 대학생 때 시작되지만, 청소년기에 먼저 자신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원하는 직업을 얻기 위해 취직을 하거나 대학 학과에 진학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018년 진로교육 현황조사에 따르면 중·고등학생을 위한 ‘진로와 직업’ 수업과 진로탐색, 진로심리검사, 진로체험, 진로상담, 진로동아리의 참여율이 높아져 진로교육이 점차 강화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진로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2018년 기준으로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의 희망직업이 명확하였으며, 대개 직업은 부모님에 의해 알게 되었으나(중학생 24.2%, 고등학생 20.7%) 희망직업을 선택할 때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거나(중학생 51.8%, 고등학생 48.6%) 잘 해낼 수 있는 일(중학생 19.6%, 고등학생 21.4%)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다고 하였다(교육부, 2018). 이렇듯 진로선택에서 부모님의 영향력도 크며 자신에 대해 잘 아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Super(1957)의 자아개념 이론(self-concept theory)에서는 적합한 진로선택과 준비를 위해 개인적으로 자아개념 발달이 필요하며(Alam, 2016에서 재인용), 인간의 성장과 발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Munawir, Yusuf, Effendi, & Afdal, 2018). 자아개념이란 자신의 기대에 대한 개인적인 판단으로 정의 내릴 수 있고 학업과 사회 요인과 같은 다양한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다(Fenning & May, 2013). 자아개념은 자신에게 펼쳐진 환경에서 경험을 통해 형성되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인식, 관찰, 평가와 자신의 삶에서 다른 사람과 관련된 것도 포함하고 있다(Munawir et al., 2018).

따라서 자아개념 형성과 발달에서 가정환경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Alam, 2016). 선행 연구에서도 자아개념은 청소년의 학업 및 학교생활(남숙경, 2015)과 정신건강(성경미, 이한주, 2013; 최장원, 김희진, 2011), 심리요인(김지혜, 박주희, 2017)의 매개효과가 있다는 것을 밝히며 청소년의 전반적인 발달에서 중요한 매개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듯 청소년이 경험하는 환경에서 자아개념을 형성하면서 환경과 자신의 강점과 약점 등을 타협하여 향후 진로를 선택하게 된다.

진로발달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 중 하나가 진로성숙도(career maturity)인데, 이는 Super(1955)가 직업성숙도의 개념을 소개한 이후 다양한 발달이론가들이 연구하여 전개한 개념이다(김정원, 김옥인, 2007에서 재인용). 진로성숙은 진로발달의 관점에서 기초하는 개념인 만큼 발달 시기에 따른 맞춤형의 연구가 필요하다. 정미나와 노지은(2016)의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한 메타분석 결과 개인의 특성과 진로 및 학교, 친구, 가정 요인 순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특

히 자아개념이 진로성숙에 가장 큰 효과를 내는 개인 요인이며, 가정 요인에서는 대화와 같은 정서적 지지가 구조적인 문제보다 영향을 크게 미치고 또래의 요인도 진로성숙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라 밝힌 바 있다(정미나, 노지은, 2016). 진로성숙과 자아개념 등이 오래된 개념인 만큼 관련 연구들도 수없이 많은 편이다. 캐나다와 미국에서도 청소년기 또는 고등학생의 진로 교육과 진로동기, 진로를 위한 접근과 결과를 보여준 연구가 있다(Gaylor & Nicol, 2016).

국내에는 개인의 특징과 개인을 둘러싼 환경을 변인으로 한 연구도 있으며, 연구방법도 회귀 분석, 구조방정식, 종단연구 방법 등 다양하게 분석된 편이다. 하지만, 발달 시기에 따라 자아개념, 진로성숙 등이 다를 수 있는데 중·고등학교 학령기를 아우르면서 나타나는 변화를 살펴본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년까지 4년간의 종단적인 변화를 파악하면서 진로성숙에 미칠 수 있는 변인과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부모의 지지와 진로성숙도의 초기값과 변화율의 관계에서 자아개념의 초기값과 변화율이 매개역할을 하는가?

II. 이론적 배경

1. 부모의 지지와 자아개념과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자녀의 출생 직후 또는 태내부터 시작되고, 인간의 발달이 인생 초기 경험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인간의 행동특성과 발달은 부모와의 상호작용 양식에 크게 의존하며,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경험을 한다(정미라, 원유미, 2001). 자녀 양육은 자녀가 자라고 발달하는 동안 끊임없는 변화와 도전과정을 부모에게 제공하는 것과 같으며(Putnick et al., 2008) 진로발달에도 예외는 아니다.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장은진 외, 2018)에 따르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필요한 진로교육 정보를 조사한 결과 ‘자녀 진로지도를 위한 자료 및 정보제공’이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희망직업을 선택할 때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거나 잘하는 일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지만, 이 직업도 대개 부모님에 의해 알게 되었다는(중학생 24.2%, 고등학생 20.7%) 조사결과가 있다(교육부, 2018). 이를 보았을 때, 부모가 진로발달에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청소년들은 부모에게서 벗어나 독립을 원하지만, 여전히 성인에게 의존하는 존재라는 것도 알 수 있다.

진로발달에서 부모의 역할에 대한 연구주제 중 대표적으로는 부모의 지지와 양육 태도, 관계, 관여에 관한 연구가 있다. 선헌연과 김계현(2007)은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대한 부모의 영향 연구

들은 주로 자녀의 시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부모가 지각한 연구는 적다고 하였다. 자녀와 부모 모두를 대상으로 연구하기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어서 직접 연구된 빈도는 낮으나 청소년 전반 진로발달에 부모가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모는 청소년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요인이며, 구체적으로 부모의 학업지지와 정서적 지지는 청소년의 자아개념 형성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으로서 역할을 한다. 부모의 지지와 자아개념 두 변인을 중심으로 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부모의 지지는 자아개념과 독립변인으로 함께 사용되고, 부모의 지지가 자아개념을 매개로 다른 진로 변인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부모의 지지와 자아개념을 연구한 이선영과 송주연(2017)은 부모의 학업적 지지와 정서적 지지가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며,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종단적인 관계를 보임을 입증하였다. 이 외에 영향 관계를 ‘부모지지’라는 척도로 직접 살펴본 연구는 적으나 부모의 양육 태도, 관여, 의사결정 등 부모가 청소년의 자아개념에 주는 영향을 살펴볼 수 있다.

부모의 양육 태도는 영유아기 뿐 아니라 청소년기 전반까지 영향을 주는데 이것은 수용적이든 거부적이든 모두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친다(정미라, 원유미, 2001). 이사라(2001)는 6세에서 16세까지 부모의 양육과 자아개념의 관계에서 나이에 따라 조금씩 다른 양상을 보이는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사라(2001)의 연구에서는 7세에는 부모의 양육행동이 수용적, 온정적, 자녀에게 기대감이 있는 경우 자녀의 자아개념이 긍정적으로 나타남. 10세에는 부모가 민주적이고 자율-협동적인 방식인 경우,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나타내었다고 하였다. 반면, 16세에는 양육방식이 개방적이고 보호적일 때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보이고 거부적일 경우 자아개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기에 따라 부모의 긍정적 양육방식이 자아개념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외에도 이주리와 김기홍(2017)은 부모의 학습참여인 학습 선택권, 민주규칙제공, 학업진보 격려, 학업 정보제공은 학업 자아개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는데, 그 중 정보제공, 격려, 선택권, 규칙, 적정성 순으로 유의한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정미라와 원유미(2001)는 수용적 태도가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시키는 것에 도움을 주는 요인이며, 부모가 의사결정 시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것보다 공동형이 자아개념 발달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반면, 부모의 행동이 자아개념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을 밝힌 Putnick 등(2008)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행동 중 느슨한 통제가 청소년의 낮은 자아개념 형성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부모의 행동은 초기 청소년기의 부모 개념과 자아개념, 청소년 발달 기능에 부모-청소년 관계에 영향을 주고 여러 방식으로 청소년의 자아개념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Putnick et al., 2008). 선행 연구에서는 부모의 지지보다 양육에 초점을 두어 연구가 되었는데, 청소년의 발달을 지원하는 부모지지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이라는 이름보다 청소년을 옆에서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자아

개념 형성이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종단적인 연구를 다각도의 방면으로 검증하였을 때, 어떠한 결과를 보이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이선영과 송주영(2017)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지지와 자아개념, 진로성숙을 변수로 다룬 종단연구가 있으나 초등학교-중학교의 종단변화를 검증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고등학교의 종단변화를 검증하여 부모의 지지와 자아개념의 관계를 연속선상에서 살펴본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본다.

2. 부모의 지지와 진로성숙과의 관계

진로성숙은 1940년대 청소년의 진로 행동을 연구하는 것에서 시작되어 1950년대 직업선택을 연구하는 이론가에 의해 미국에서 발달한 개념이다. 여러 발달 접근법을 도입한 Ginzberg(1951)의 직업선택 이론에서 이를 수정하고 보완하여 Super(1955)가 직업선택에 대한 포괄적인 이론을 제시하였다(김수리, 2004에서 재인용). 이후 Crites(1978)는 진로성숙을 같은 연령층과 비교해서 나타나는 상대적인 직업 준비 수준으로 개념화하였다. 진로성숙은 본인의 능력, 적성, 흥미, 가치관을 알고 직업 세계를 이해하여 진로를 계획하고 선택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이다(Esters & Retallick, 2013; Hidayat, Ardi, Herawati, Khairul, & Amrina, 2019). 특히 청소년의 진로성숙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유는 직업 세계가 빠르게 변화하여 진로 목표를 달성하고 학교에서 직장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전혜영, 2018).

Super(1974)가 제시한 진로성숙의 다섯 가지 차원은 직업 방향 선택, 선호하는 직업 갖기 위한 정보 찾고 계획 세우기, 지속적인 직업 선호, 확고한 자기 성향, 현명한 직업 선호로 구성되어 있다(Dybwad, 2008에서 재인용). Super(1990)의 후기 진로발달에 의하면 청소년기(19세-24세)는 현실적 자아개념 개발을 하고, 기회를 위해서 추가로 학습을 하며, 선택한 분야 공부를 시작하고, 현재 직업을 확실히 하며, 취미 시간을 줄여가는 것이라고 하였다(김봉환 외, 2010에서 재인용). 비록, 최근에는 학업에 열중하는 기간과 취업 기간이 늘어나면서 현재 상황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있으나 현실적인 자아개념을 개발하고 원하는 진로에 다가가기 위해서 추가학습을 한다는 부분에서 진로성숙이 청소년기에 중요한 요인임은 분명하다.

진로성숙은 내면과 관련된 것이기에 당사자의 개인적인 변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만, 부모의 지지, 진로지지, 자율성지지도 진로성숙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한다(정미나, 노자은, 2016). 또한, 연구자들도 부모에게 영향을 받는 청소년 진로 관련 변인으로 진로결정과 진로성숙 연구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전혜연, 김계현, 2007), 선행연구를 정리한 것은 다음과 같다.

부모의 지지는 청소년 전반에 진로성숙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부모의 학업 지지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의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치는데, 진로진학 상담, 상급학교 방문, 입시설명회 참석이 진로성숙에 정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임효진, 한지은, 김정수, 전혜연, 2016). 또한, 고등학생의 진로성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이문희, 신효정, 2015; 이지연, 2013),

후기 청소년인 대학생의 경우, 부모 요인 또는 부모의 사회적 지지가 진로성숙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금지현, 2012; 김수정, 진시아원, 이강이, 2019). 이렇듯, 시기별 부모가 지지하는 수준과 분야가 다른데, 비교적 어린 시기에는 정보를 비롯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면, 성장할수록 격려와 뒤에서 응원해주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는 것이다.

부모는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성숙에도 다른 청소년들과 예외 없이 영향을 준다.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학교를 그만둘 당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모의 지지는 직접 진로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심리적, 정보, 경제적 지지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진로 결정과 준비에 중요한 자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이재희, 이경상, 2018).

하지만 후기 청소년의 경우 부모에게 독립하는 시기인 만큼 부모의 관여가 진로성숙 또는 준비행동에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부모의 관여가 진로태도성숙의 하위요인인 일에 대한 태도와 독립성에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변인으로 볼 수 있는데, 관여가 높을수록 후기 청소년이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자신의 진로에서 독립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김수정 외, 2019). 즉, 부모가 청소년의 진로성숙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은 맞으나 점차 부모에게서 독립해가는 객체가 되도록 적절한 수준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부모의 지지와 진로성숙 간의 관계는 이미 많은 연구에서 입증된 바는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종단관계를 입증해 보인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다.

3. 자아개념과 진로성숙과의 관계

본 연구의 마지막 개념으로, 자아개념은 자신에 대한 인식으로(Shavelson, Hubner, & Stanton, 1976) 본인의 현재 상태를 반영한다. 따라서 자아개념은 자신에 대한 생각에 대한 개인적인 판단이라 정의할 수 있다. 이 개념은 초창기에 학업적 자아개념과 사회적 자아개념 두 가지로 나누었는데, 학업적 자아개념은 학생이 학업 성취와 학교에서 보이는 능력과 타인과 상호작용으로 형성된 자신에 대해 측정하는 것이며(Brookover, 1962), 사회적 자아개념은 가족 친구를 비롯한 다른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를 측정하는 것이다(Fenning & May, 2013).

자아개념 발달에 대한 견해는 다양하지만, 경험의 산물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가 같은 의견을 내고 있다. 자아란 기본적으로 사회적 구조이며, 그것은 사회적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고, 자아개념의 뿌리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상호 작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나'에 대한 인상이나 평가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정미라, 원유미, 2001). 따라서 자아개념은 개인의 행동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청소년의 학업적 자아개념은 진학과 연결이 되고, 사회적 자아개념은 관계 형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진로를 선택할 때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예: 외향적일 경우 어울리는 직업, 내

향적일 경우 어울리는 직업). 자아개념 이론은 다차원이라고 볼 수 있다. 학생들은 학교와 진로 개발 욕구에 맞추어 제공되는 흥미와 능력에 따른 진로 가이드 라인에 따라 자아개념을 형성할 수 있다(Yang & Wong, 2020). 따라서 많은 연구자는 진로프로그램이나 상담을 통해서 자아개념과 진로성숙을 높이는 노력을 하였으며, 그 외에도 자아개념과 진로성숙과의 관계(이윤주, 현정화, 2003; 조주연, 이은정, 2018), 자아개념이 학업 관련 변인과 함께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김정원, 김옥인, 2007)가 있다.

Erikson과 Super의 진로발달 맥락에서 자기개념에 대한 논의는 청소년기에 정신 발달과정의 관련 구성요소이다. 결과적으로, 청소년기의 진로발달에 대한 현재 지식은 Super가 제안한 바와 같이 자기개념 발달뿐 아니라 정체성 형성과 관계 탐색에 도움을 준다. 자아개념은 진로선택을 대표한다고 주장한다. Super는 직업을 가지기 이전 청소년기에 역량에 대한 자기인식을 제안하는 연구에서 청소년기에 자기인식은 훗날 직업적인 성공과 만족과 관련이 있고 자기인식은 진로성숙과도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Wallace-Brosious et al., 1994). 자아개념은 다른 사람과 관련한 자신에 대한 인식 및 관찰과 평가이기에 청소년에게 필수적인 것인데 진로성숙을 높이는 것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Hidayat et al., 2019; Wallace-Brosious et al., 1994), 자아개념과 함께 진로성숙이 발달해야 신체적인 성장과 함께 인지적인 발달을 성숙시킬 수 있다(Munawir et al., 2018).

자아개념과 진로성숙의 관계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조주연과 이은정(2018)은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교 시기까지의 중단연구를 한 결과 자아개념과 진로성숙도 간의 상관관계는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김정원과 김옥인(2007)은 중학생의 자아개념이 진로성숙의 계획성과 타협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진로성숙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진로성숙의 계획성 요인을 가장 설명 많이 해주는 것은 능력 자아개념이며, 다음으로 사회적 자아개념이라고 하였다. 진로성숙 중 성향 요인을 가장 많이 설명해주는 것은 사회적 자아개념이며, 진로성숙도의 타협성 요인을 설명해주는 것은 사회적 자아개념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진로성숙 중 능력과 관련된 요인은 자아개념과는 관련이 없었으며 인지적인 특성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고등학생의 경우 대학교 진학과 취업 중 선택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기에 진로성숙에 관련한 연구를 크게 다룰 수밖에 없다. 초등학교, 중학생과 마찬가지로 고등학생의 자아개념이 진로성숙도를 설명하는 요인이며(이윤주, 현정화, 2003), 부모의 양육 태도가 더해져 예측력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또한, 특목고와 자율고 고등학생도 자아개념이 진로성숙을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이다(송영명, 김장희, 2011).

진로성숙에 관한 많은 연구를 종합한 정미나와 노자은(2016)에 의하면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요인 중 개인변인으로 자아관련 변인이 다수의 논문에서 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메타분석 결과에서도 개인관련 변인이 진로성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하였다. 또한, 유준상과 서우석(2013)은 심리적인 변인이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메타분석을 하였는데, 자아개념은 중등학생이 가장 큰 효과크기를 보였고, 초등학생은 다음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그리고 진로성숙과 가장 관련이 높은 심리적 요인은 자아정체감,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자아

개념 순으로 높다고 하였다. 여러 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자아개념이 진로성숙에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본 연구에서는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여 부모의 지지가 진로성숙의 관계에서 중단적으로도 역할을 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분석 자료

본 연구는 한국교육종단연구 2013의 3차~6차 자료 중 자아개념(학업, 사회), 부모지지(학업, 정서), 진로성숙(이해, 계획)에 모두 응답한 패널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 패널의 기본 정보를 살펴보면, 전체 학생 5,377명 중 남학생은 2,599명(48.3%), 여학생은 2,778명(51.7%)으로 여학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초기 연구대상인 중학교 1학년 때의 재학생의 학교 도시 규모는 중소도시/읍면지역에 해당하는 학생이 3,141명(58.4%)으로 특별시 대도시(2,236명, 41.6%)의 학생보다 더 많았다. 학교 설립유형은 국공립이 4,378명(80.3%)으로 가장 많았으며, 남녀공학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수가 3,908명(72.7%)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에도 약간의 변동이 있었으나 상급학교로 진학한 시기인 6차(고등학교 1학년) 정보를 살펴보면, 학교 규모는 중소도시/읍면지역에 해당하는 학생이 3,145명(58.5%)으로 특별시와 대도시 학생보다(2,232명, 41.5%) 많았으며, 국공립(2,937명, 54.7%)과 사립(2,440명, 45.4%) 비율 차이는 중학생 시기보다 차이가 적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남녀공학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이 3,186명(59.3%)으로 중학교 시기보다는 줄었으며, 남고에 재학하는 학생은 1,050명(19.5%), 여고에 재학하는 학생은 1,141명(21.2%)으로 나타났다. 3차부터 6차까지 학생에 대한 기본정보는 <표 III-1>에 제시하였다.

<표 III-1> 학생에 대한 기본정보

차수	변 인		빈도	퍼센트(%)
공통	성별	남학생	2599	48.3
		여학생	2778	51.7
3차 (중1)	학교 도시규모	특별시/대도시	2236	41.6
		중소도시/읍면지역	3141	58.4
	학교 설립유형	국공립	4378	80.3
		사립	1059	19.7
	남녀공학 유무	남녀공학	3908	72.7
		남학교	701	13.0
		여학교	768	14.3

청소년의 부모지지와 진로성숙의 관계에서 자아개념의 매개효과: 잠재성장 모형을 중심으로

(표 계속)

차수	변 인	빈도	퍼센트(%)
4차 (중2)	학교 도시규모	특별시/대도시	2237
		중소도시/읍면지역	3140
	학교 설립유형	국공립	4320
		사립	1057
	남녀공학 유무	남녀공학	3905
		남학교	707
		여학교	765
			14.2
5차 (중3)	학교 도시규모	특별시/대도시	2238
		중소도시/읍면지역	3139
	학교 설립유형	국공립	4317
		사립	1060
	남녀공학 유무	남녀공학	3906
		남학교	704
		여학교	767
			14.3
6차 (고1)	학교 도시규모	특별시/대도시	2232
		중소도시/읍면지역	3145
	학교 설립유형	국공립	2937
		사립	2440
	남녀공학 유무	남녀공학	3186
		남학교	1050
		여학교	1141
			21.2

2. 연구방법 및 절차

1) 부모지지

본 연구에서는 부모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한국교육종단연구 3차~6차까지의 학업 지지에 관한 6문항과 정서 지지 3문항을 사용하였다. 부모의 학업적 지지 문항은 ‘집안의 공부 분위기를 조성하신다’, ‘학교공부와 숙제를 확인하신다’, ‘공부 방법에 대해 조언하신다’, ‘성적 관리에 신경 쓰신다’, ‘진로/진학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신다’, ‘평소 생활을 확인하시고 일정을 관리하신다’로 문항 신뢰도는 .861 ~ .867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학업지지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의 정서적 지지 문항은 ‘나를 격려하신다’, ‘내 기분을 맞추어 주신다’, ‘나를 이해해 주신다’로 문항 신뢰도는 .923 ~ .934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정서적 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2) 자아개념

본 연구에서는 자아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교육종단연구 3차~6차까지의 사회적 자아개념에 관한 5문항과 학업적 자아개념에 관한 5문항을 사용하였다. 사회적 자아개념에 관한 문항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한다’, ‘친구들은 나와 놀기를 좋아한다’, ‘단체생활을 잘 한다’, ‘다른 사람과 있는 것이 즐겁다.’, ‘내 친구들은 나를 믿는다’이며 문항 신뢰도는 .895 ~ .923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자아개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학업적 자아개념에 관한 문항은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공부를 한다’, ‘학교공부를 열심히 한다’, ‘수업시간에 발표하거나 내 이름이 불리는 것을 좋아한다’, ‘학교 가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편안한 마음으로 수업에 참여한다’이며 문항 신뢰도는 .880 ~ .902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적 자아개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3) 진로성숙도

본 연구에서는 진로성숙도를 측정하기 위해 한국교육중단연구 3차~6차까지의 자기이해 5문항과 진로계획 5문항을 사용하였다. 한국중단연구 패널자료는 자기이해, 진로계획, 진로태도의 세 요인으로 나뉘어 있으나 확인적 요인분석 시 표준화 경로계수가 마이너스로 분석에 적절하지 않아 제외하였다. 진로성숙의 자기이해 문항은 ‘내가 잘하는 일이 무엇인지 안다’, ‘나의 장점이 무엇인지 안다’,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인지 안다’, ‘내가 어떤 일을 좋아하는지 안다’, ‘나에게는 소중한게 여기는 가치가 있다’며 문항 신뢰도는 .917 ~ .938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성숙도 중 자기이해가 높음을 의미한다.

진로성숙의 진로계획 문항은 ‘장래 희망을 이루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다’, ‘미래를 위해서 다양한 경험을 쌓으려고 한다’, ‘학교공부 중 어떤 것들은 나의 진로와 관련해 특별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자주 생각해 본다’, ‘내가 삶에 있어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자주 생각해 본다’이며 신뢰도는 .875 ~ .913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성숙의 진로 계획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주요 변인 설명은 <표 III-2>에 제시하였다.

<표 III-2> 변수설명

변수		변수처리	신뢰도			
			3차	4차	5차	6차
독립변수	부모지지	부모의 학업 지지에 관한 5점 척도 6문항	.867	.867	.861	.867
		부모의 정서 지지에 관한 5점 척도 3문항	.923	.930	.934	.930
매개변수	자아개념	사회적 자아개념에 관한 5점 척도 5문항	.895	.918	.923	.919
		학업적 자아개념에 관한 5점 척도 5문항	.880	.895	.902	.900
종속변수	진로성숙	자기이해에 관한 5점 척도 5문항	.930	.931	.938	.917
		진로계획에 관한 5점 척도 5문항	.910	.913	.909	.875

3. 분석 방법

본 연구는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분석하기에 앞서 SPSS 22.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과 기술통계 분석을 통해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를 분석하여 연구대상의 일반 정보와 다변량 분석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이후, Mplus8.0을 사용하여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으로 종단자료를 분석하였다.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은 변인에서 시간에 따른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함수를 정의하고 변화에서 개인차가 유의한지 검증할 수 있는데, 변화함수가 선형이면 절편과 기울기에서 개인차의 의미는 초기치와 변화율에 있어서 개인차가 된다(조민규, 김춘경, 2015). 본 연구에서는 최대한 결측치를 제거하였으므로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ML)을 사용하여 모수추정을 하였으며,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해 χ^2 검증, CFI, TLI, RMSEA를 사용하였다. 또한, 종단매개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부트스트랩(bootstrap)을 사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기초통계 및 상관관계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분석에 앞서 각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80이상의 상관관계로 공분산 관계가 성립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변수 간 상관관계가 27에서 .65사이로 나타나 공분산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기초통계를 분석하여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여 다변량 분석이 가능한지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하위변수의 왜도는 -.34에서 -.09 사이로 왜도 절대값 2를 넘지 않았으며, 첨도는 -.24에서 .23 사이로 첨도 절대값 7을 넘지 않아 다변량 분석에 적합한 변수로 사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Curran et al., 1996). 연구 변인들의 상관관계와 기술통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표 IV-1>에 제시하였다.

〈표 IV-1〉 연구 변인 간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1											
2	.65***	1										
3	.57***	.65***	1									
4	.52***	.59***	.65***	1								
5	.47***	.39***	.35***	.33***	1							
6	.38***	.46***	.38***	.36***	.62***	1						
7	.33***	.37***	.45***	.38***	.53***	.61***	1					
8	.33***	.34***	.36***	.45***	.53***	.58***	.61***	1				
9	.51***	.40***	.35***	.33***	.44***	.32***	.28***	.27***	1			
10	.39***	.50***	.39***	.35***	.32***	.45***	.30***	.28***	.57***	1		
11	.34***	.38***	.48***	.38***	.28***	.30***	.39***	.27***	.49***	.58***	1	
12	.33***	.37***	.39***	.50***	.26***	.30***	.29***	.38***	.45***	.51***	.56***	1
m	3.97	3.92	3.89	3.87	3.56	3.50	3.47	3.43	3.91	3.85	3.86	3.92
sd	.62	.66	.68	.67	.74	.73	.75	.76	.68	.71	.72	.67
왜도	-.26	-.22	-.19	-.22	-.21	-.09	-.12	-.08	-.23	-.22	-.34	-.32
첨도	-.09	-.24	-.19	-.16	.11	.20	.18	.10	-.05	.07	.23	.19

1:자아개념3차, 2:자아개념4차, 3:자아개념5차, 4:자아개념6차, 5:부모지지3차, 6:부모지지4차, 7:부모지지5차
8:부모지지6차, 9:진로성숙3차, 10:진로성숙4차, 11:진로성숙5차, 12:진로성숙6차

*** $p < .001$

2.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분석

상관관계 분석으로 다변량 분석 가능성을 확인한 후 잠재성장모형 검증을 위해 변인별로 무변화 모형과 선형모형으로 나누어 적합도를 비교하였다. 먼저, 부모지지의 무변화 모형과 선형변화 모형을 비교하였을 때, 절대 적합도인 카이제곱 검증은 모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 적합도 지수인 *CFI*와 *TLI*는 무변화 모형과 선형변화 모형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선형변화 모형의 *CFI*와 *TLI* 지수가 .014-.022 더 높으며, *SRMR*은 .027, *RMSEA*값은 .04로 나타나 기준치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나 선형변화 모형을 최종 변수로 선정하였다.

자아개념은 무변화 모형과 선형변화 모형 모두 절대 적합도 지수는 나쁘게 나타났으나 *CFI*와 *TLI*는 .90 이상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아개념의 무변화 모형은 *SRMR*은 .152, *RMSEA* 값은 .11이며, 선형변화 모형의 *SRMR*은 .063, *RMSEA*는 .06으로 나타났다. 두 모형 모두 기준치에는 부합하지 않으나 두 모형을 비교하였을 때, 선형변화 모형의 적합도 수치가 더 좋은 수준으로 나타나 선형변화 모형을 최종 모형으로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진로성숙의 무변화 모형과 선형변화 모형을 비교하였을 때, 절대 적합도 지수는 두 모형 모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CFI*, *TLI*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선형변화 모형이 .002 높게 나타났다. 또한, *RMSEA* 값은 .08로 같게 나타났으며, *SRMR*은 .041 낮게 나타나 최종 모형으로 선형변화 모형을 선정하였다. 각 변인에 대한 무변화 모형과 선형변화 모형을 비교한 자세한 사항은 <표 IV-2>에 제시하였다.

<표 IV-2> 각 변인에 대한 무변화 모형과 선형변화 모형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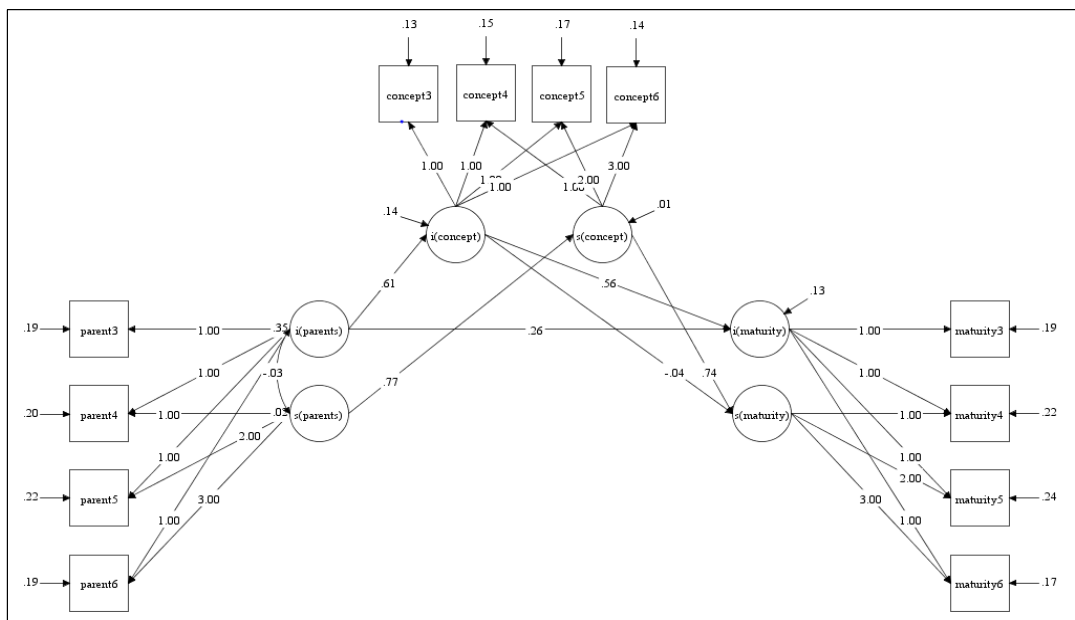
		χ^2/df	<i>p</i>	<i>CFI</i>	<i>TLI</i>	<i>SRMR</i>	<i>RMSEA</i>	평균 초기치	분산 변화율	초기치	변화율
부모 지지	무변화	231.90/8	.000	.973	.980	.067	.07(.06-.08)	3.60***		.31***	
	선형변화	48.62/5	.000	.995	.994	.027	.04(.03-.05)	3.65***	.029***	.32***	.013***
자아 개념	무변화	530.10/8	.000	.946	.960	.152	.11(.10-.12)	3.91***		.26***	
	선형변화	85.29/5	.000	.992	.990	.063	.06(.05-.07)	3.96***	-.03***	.28***	.017***
진로 성숙	무변화	311.29/8	.000	.957	.968	.126	.08(.08-.09)	3.89***		.25***	
	선형변화	182.08/5	.000	.975	.970	.085	.08(.07-.09)	3.88***	.004	.30***	.016***
기준치		<5.0	.05<	.90<	.90<	<.05	<.05				

*** $p<.001$

각 변인별로 무변화 모형과 선형변화 모형비교를 통해 네 변수 모두 선형변화 모형을 적용하였다. 이를 토대로 자아개념이 부모지지와 진로성숙 사이의 부분 매개변인으로 역할을 한다는 가정으로 모형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χ^2 는 2409.118, *df*는 55, *p*값은 .000으로 절대 적합도와 상대 적합도인 *RMSEA*는 .089로 좋지 않았다. 하지만 그 외의 상대적합도인 *CFI*는 .930, *TLI*는 .916으로 적합하게 나타나 연구모형으로 선정 하였다.

선정한 모형을 토대로 초기치와 변화율을 통해 부모의 지지와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자아개념의 매개효과가 성립하는지 분석하였다.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의 표준화 및 비표준화계수의 경로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기치 간의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부모지지 초기치는 자아개념 초기치($B=.614$, $p<.001$)와 진로성숙 초기치($B=.264$, $p<.001$)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며, 자아개념 초기치도 진로성숙 초기치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B=.559$, $p<.001$). 이는 부모지지가 높을수록 자아개념과 진로성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초기치와 변화율 간의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부모지지의 초기치가 자아개념 변화율($B=.007$, $p>.05$)과 진로성숙도 변화율($B=-.011$, $p>.05$)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자아개념 초기치는 진로성숙도 변화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B=-.036$, $p<.01$). 이는 자아개념의 낮은 초기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로성숙의 증가를 가속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다. 셋째, 변화율 간의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부모지지 변화율이 진로성숙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B=.159, p>.05$), 부모지지 변화율이 자아개념의 변화율에 유의한 영향을 주며($B=.774, p<.001$), 자아개념 변화율이 진로성숙 변화율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B=.738, p<.001$). 이는 부모지지가 높아질수록 진로성숙이 증가를 가속시킬 수 있으며, 자아개념이 높아질수록 진로성숙이 증가하는 것을 가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의 표준화 및 비표준화 경로계수를 나타낸 것은 <표 IV-3>과 같으며, 이에 대한 모형은 <그림 IV-1>과 같다.



$i(parens)$: 부모지원초기치 $s(parens)$: 부모지원변화율 $i(concept)$: 자아개념초기치
 $s(concept)$: 자아개념변화율 $i(maturity)$: 진로성숙초기치 $s(maturity)$: 진로성숙변화율

<그림 IV-1>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비표준화 경로계수

〈표 IV-3〉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표준화 및 비표준화 경로계수

경로	모 수	β	B	$S.E.$	p
초기→초기	부모지지 초기치 → 자아개념 초기치	.694	.614	.014	.000
	부모지지 초기치 → 진로성숙 초기치	.285	.264	.021	.000
	자아개념 초기치 → 진로성숙 초기치	.535	.559	.024	.000
초기→변화	부모지지 초기치 → 자아개념 변화율	.034	.007	.006	.243
	부모지지 초기치 → 진로성숙 변화율	-.054	-.011	.009	.221
	자아개념 초기치 → 진로성숙 변화율	-.158	-.036	.010	.001
변화→변화	부모지지 변화율 → 자아개념 변화율	.856	.774	.044	.000
	부모지지 변화율 → 진로성숙 변화율	.185	.159	.129	.218
	자아개념 변화율 → 진로성숙 변화율	.778	.738	.144	.000

다음으로 자아개념이 부모지지와 진로성숙에 미치는 중단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분석하기 위해 n 을 100,000으로 설정하여 부트스트래핑을 통해 분석하였다. 첫째, 부모지지 초기→자아개념 초기→진로성숙 초기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 95% 신뢰구간 내에 0을 포함하지 않아(Bias-corrected CI=.297 ~ .391)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모지지 초기→자아개념 초기→진로성숙 변화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 95% 신뢰구간 내에 0을 포함하지 않아(Bias-corrected CI=-.040 ~ -.004)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모지지 변화→자아개념 변화→진로성숙 변화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 95% 신뢰구간 내에 0을 포함하지 않아(Bias-corrected CI=.265 ~ 1.232)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통한 중단매개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상으로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의 중단매개 효과 검증 내용은 <표 IV-4>에 제시하였다.

〈표 IV-4〉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중단매개효과 검증(Bootstrapping)

매개유형	모수	매개효과	하한	상한
부분매개	부모지지 초기 → 자아개념 초기 → 진로성숙 초기	.371***	.322	.421
완전매개	부모지지 초기 → 자아개념 초기 → 진로성숙 변화	-.110**	-.203	-.020
완전매개	부모지지 변화 → 자아개념 변화 → 진로성숙 변화	.666***	.293	1.410

** $p < .01$, *** $p < .001$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통해 부모의 지지와 진로성숙의 관계에서 자아개념의 종단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통해 부모지지, 자아개념, 진로성숙의 초기치와 변화율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먼저, 초기치 값을 살펴보면 자아개념 초기값은 부모의 지지초기값과 진로성숙 초기값 간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지지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자아개념과 진로성숙이 발달하고, 청소년의 자아개념은 진로성숙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다. 이때, 자아개념은 부모의 지지가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적으로 영향력을 높이는 매개효과가 있었다.

둘째,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의 변화율 값을 살펴보면, 자아개념 초기치가 부모지지 초기치와 진로성숙 변화율에 보이는 완전 매개효과는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모 지지와 자아개념의 초기값보다 진로성숙의 발달이 더더진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부모지지 초기값은 진로성숙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자아개념을 매개로 하여 부적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아개념 변화율이 부모지지의 변화율과 진로성숙의 변화율에 완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지지의 변화율이 자아개념 변화율을 완전매개로 진로성숙 변화율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선영과 송주영(2017)이 초등학교 6학년~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부모의 지지가 자아개념을 부분매개로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와 선행연구와는 매개효과에서 차이가 있는데, 이선영과 송주영(2017)은 초기값과 변화율 값에서 모두 부분 매개효과를 보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초기값(중학교 1학년)은 부분 매개효과를 보였으나 변화율에서는 완전 매개효과를 보였다는 것에 차이가 있다. 선행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므로 청소년 시기에 따른 변화가 있다고 예상된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분석한 이지연(2013)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지지 유형에 따라 진로태도성숙과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유형이 달랐다. 정보지지만 부분 매개효과가 있고, 정서 지지, 평가 지지, 물질 지지의 경우 완전 매개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학업적 지지와 정서적 지지를 나누어 분석하였을 때, 구조모형이 적합하지 않다고 분석이 되어 부모지지라는 큰 요인으로 묶어 설명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이가 있다.

하지만 정서 지지가 포함된 요인이 완전 매개효과가 있다는 것을 참고하였을 때, 중학생에게는 부모지지가 진로성숙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고등학생 때는 직접적인 요인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이는 김미라와 이호준(2015)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는 부모지지가 진로태도 성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한 결과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면에는 부모의 지지가 약해지면서 다른 요인이 고등학생 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 중학생 시기보다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고 상위 대학 진학을 위해서 높아지는 학업 스트레스를 또래와 풀거나 담임교사와 상담을 하면서 친구 또는 교사의 요인이 부모지지보다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을 예상해본다. 안혜진과 전미경(2015)은 고등학교 1학년으로 올라가면서 부모지지는 감소하고 교사의 지지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양상이 반영되었을 수 있다.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통해 밝혀진 연구결과는 부모의 지지가 중학교 때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만, 점차 부모의 영향력보다 자아개념이 진로성숙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아개념이 중학생 때 단기간에 높아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아동기부터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몰두해보고 많은 경험을 하는 것이 필요하기에 이때 부모의 조력이 중요한 것이다. 하지만 청소년이 성장해가면서 부모의 정보력과 학업지지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적성과 성적에 맞추어가면서 진로를 타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의 지지보다는 자아개념이 진로성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자아개념이 진로발달에서 약한 매개효과를 보인 것은 여러 선행연구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는데 청소년은 정체성의 혼돈을 겪는 시기로 자아개념 발달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순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다가 대학생 때 다시 긍정적인 발달을 보이는 V자형 발달경향을 보이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안혜진, 정미경, 2015; 홍세희, 박언하, 홍혜영, 2006). 자아개념 발달이 비록 학년별로 미미한 매개효과를 보이나, 부모의 지지와 진로성숙 간의 변화율에서 완전 매개효과를 보이는 중요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는 옛말처럼 자신의 진로개발과 더불어 자신에 대한 이해와 환경을 이해하면 자신이 원하는 분야에서 성공의 퍼즐을 푸는 도움이 되기에(Powell, 2009) 청소년의 자아개념 발달을 위해 개인적, 가정, 사회적으로 계속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 중요한 매개효과를 보인 자아개념은 미술치료(정은주, 정광석, 2007), 활동 프로그램(심은정, 박승희, 2017)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발달시킬 수 있다는 선행연구들이 많지만, 결국 가정으로 돌아가서 계속 성장해가야 하기에 비폭력 대화를 이어가는 등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 현재도 각 교육청에서 진로교육, 청소년 자녀 이해 교육 등 다양한 콘텐츠로 부모교육을 하고 있지만, 학부모에게 지속적인 자녀 이해교육과 진로교육 연수 및 특강이 계속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을 연구결과로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대한 이해와 자기 주도적으로 진로개발역량을 증진하는 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연수 및 특강이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부모의 지지가 청소년의 자아개념 발달에 영향을 주므로 부모가 자녀의 상황을 파악하고 함께 의논하여 부모가 청소년 자녀에게 정서적 지지를 일관적 유지와 자녀에게 적절한 감정표현에 대해서도 알 수 있도록 상담과 교육이 필요하다(정주원, 2016). 직장에 다니는 어머니의 경우,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램 또는 특강에 참여하기 어렵기에 온라인 원격연수 콘텐츠 개발 등을 고려하여 많은 학부모에게 자녀의 진로개발역량을 높이기 위한 연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학부모가 자녀의 진로발달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진로정보 콘텐츠를 개발해야 하고, 콘텐츠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식의 홍보가 필요할 것이다(장은진 외, 2018).

본 연구를 통해 자아개념이 부모지지와 진로성숙의 관계를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분석을 통해 종단적 변화를 살펴보았으나 연구 과정 중에서 나타난 아쉬움과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의 연구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초기 연구 구상에는 청소년 시기에는 또래와 부모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또래 요인과 부모지지를 독립변인으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구조모형 적합도 검증에서 모형이 구현되지 않아 또래 요인을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하지만, 앞으로의 연구에서 교사요인과 또래요인 혹은 교사요인과 부모 요인을 함께 분석한다면 본 연구와 다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해본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통해 자아개념이 변화율 분석에서 완전 매개효과를 보였다는 결과와 자기회귀 교차지연 분석을 통해 학년별로 약한 매개효과를 보인다는 결과를 동시에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중1부터 고1 시기까지 분석을 하였지만, 패널조사 차수가 늘어나면서 후기 청소년 시기인 대학생 시기까지 분석을 해본다면 본 연구에서 찾을 수 없었던 V자 곡선 발달양상 또는 전반적인 청소년기의 진로발달 양상을 분석할 수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교육부 (2018). 진로교육 현황조사. 세종: 교육부.
- 금지현 (2012). 교육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부모의 사회적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성숙의 관계.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50(7), 59-66.
- 김미라, 이호준 (2015).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지지와 진로태도성숙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2(1), 287-306.
- 김봉환, 이제경, 유현실, 황매향, 공윤정, 손진희, 강혜영, 김지현, 유정이, 임은미, 손은령 (2010). *진로상담이론*. 서울: 학지사.
- 김수리 (2004). 부모 지지,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 및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수정, 진시아원, 이강이 (2019). 4년제 대학생의 진로태도성숙도 및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잠재프로파일 유형과 부모요인의 영향력 검증. *청소년학연구*, 26(4), 1-27.
- 김정원, 김옥인 (2007). 중학생의 자아개념 및 학업성취수준과 진로성숙도와의 관계. *아동교육*,

16(4), 75-82.

- 김지혜, 박주희 (2017). 또래 괴롭힘 피해가 중학생의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아개념의 매개효과. *대한가정학회*, 55(6), 625-636.
- 김진현, 한지나 역 (2019). Mplus를 이용한 데이터 분석. 서울: 학지사.
- 남숙경 (2015). 중학생의 학업중단의도와 도움추구간의 관계에서 자아개념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2(1), 73-86.
- 선혜연, 김계현 (2007). 청소년의 진로선택 및 발달에 있어 부모의 영향에 관한 연구 분석 - 1997년~2006년. *상담학연구*, 8(4), 1467-1483.
- 성경미, 이한주 (2013). 폭력 피해 경험이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자아개념의 매개효과 분석. *지역사회간호학회지*, 24(4), 407-418.
- 송영명, 김장희 (2011). 특목고 및 자율고 학생의 입학유형과 가정형편 및 자아개념에 따른 진로성숙도 차이.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30(1), 1-14.
- 심은정, 박승희 (2017). 대인관계 향상 프로그램이 발달장애 고등학생의 친구관계 인식 및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지적장애연구*, 19(2), 21-49.
- 안혜진, 정미경 (2015). 청소년의 자아개념, 사회적지지가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단적 분석. *한국교육학연구*, 21(3), 279-303.
- 유준상, 서우석 (2013). 진로성숙과 심리적 변인에 대한 메타분석. *진로교육연구*, 26(3), 165-183.
- 이문희, 신호정 (2015). 부모의 학업지지와 자녀의 진로성숙 관계에서 자기결정성 동기의 매개효과. *한국교육학연구*, 21(3), 131-151.
- 이사라 (2001). 부모와 또래가 아동의 자아개념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종단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선영, 송주연 (2017). 부모의 학업적, 정서적 지지와 진로의식 성숙도의 관계에서 자아개념의 매개효과. *한국청소년연구*, 28(4), 77-112.
- 이윤주, 현정화 (2003). 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 자아개념 및 양육태도의 관계. *교육학논총*, 24(2), 29-43.
- 이재희, 이경상 (2018). 부모지지가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결정 및 진로준비에 미치는 영향-자아존중감과 자아효능감의 매개효과-. *청소년시설환경*, 16(1), 143-153.
- 이주리, 김기홍 (2017). 부모의 학습관여, 학업스트레스 및 아동의 학업적 자아개념간의 관계.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7(1), 717-730.
- 이지연 (2013). 부모지지가 청소년의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청소년학연구*, 20(6), 219-241.
- 임효진, 한지은, 김정수, 선혜연 (2016). 청소년의 진로경험 및 부모지지가 진로성숙도의 종단변

- 화에 미치는 동시 및 지연효과. *상담학연구*, 17(5), 289-306.
- 장은진, 정윤경, 김나라, 류지영, 김재희, 장현진 (2018). 국가진로교육센터 운영지원 1. 진로교육 현황조사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세종: 교육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전혜영 (2018). 발달장애 고등학생의 직업준비도와 자기결정력, 진로성숙도의 구조적 관계. 부산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미나, 노자은 (2016). 청소년 진로성숙의 영향요인에 대한 메타분석. *한국청소년연구*, 27(3), 133-162.
- 정미라, 원유미 (2001). 부모의 양육태도 및 의사결정유형이 초등학교 자녀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初等教育研究*, 14(2), 65-85.
- 정은주, 정광석 (2007). 청소년의 자아개념 향상을 위한 미술치료 사례 연구. *상담학연구*, 8(3), 1151-1168.
- 정주원 (2016). 고등학생의 진로체험 유형과 부모지지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8(4), 139-158.
- 조민규, 김춘경 (2015). 어머니의 결혼만족도가 양육스트레스를 매개로 우울에 미치는 영향: 잠재 성장모형과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활용한 종단매개효과 검증. *韓國保育學會誌*, 15(2), 85-107.
- 조주연, 이은정 (2018). 사회 자아개념 및 학업 자아개념과 진로성숙도의 종단적 관계 분석. *교육심리연구*, 32(3), 379-396.
- 최장원, 김희진 (2011). 가정폭력이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자아개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8(1), 73-103.
- 한겨레신문(2011.04.11.). 부모세대의 직업관으로 자녀 '진로지도'해선 안 돼. 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472343.html에서 2019년 9월 3일 인출.
- 홍세희, 박언하, 홍혜영 (2006). 다층모형을 적용한 청소년의 자아개념 변화 추정: 변화에 있어서의 개인차에 대한 부모효과와 또래효과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17(2), 241-263.
- Alam, M. (2016). Home environment and academic self-concept as predictors of career maturity. *IRA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 and Multidisciplinary Studies*, 4, 359-372.
- Brookover, W. B. (1962). Self-concept of ability and school achievement, the relationship of self-images to achievement in junior high school subject.
- Crites, J. O. (1978). *Career maturity inventory: Theory and research handbook*. Monterey, CA: CBT/McGraw-Hill.
- Curran, P. J., Stephen, G. W., & Finch, J. F.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1), 16-29.
- Dybwad, T. E. (2008). The Structural Validity of Daidalos: A measure of career maturity. *Scandinavian*

-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52(2), 135-152.
- Esters, L. T., & Retallick, M. S. (2013). Effect of an experiential and work-based learning program on vocational identity,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nd career maturity. *Career and Technical Education Research*, 38(1), 69-83.
- Fenning, B. E., & May, L. N. (2013). "Where there is a will, there is an A": Examining the roles of self-efficacy and self-concept in college students' current educational attainment and career planning. *Soc Psychol Educ*, 16, 635-650.
- Gaylor, L., & Nicol, J. J. (2016). Experiential high school career education, self-efficacy, and motivation. *Canadian Journal of Education*, 39(2), 1-24.
- Hidayat, H., Ardi, Z., Herawati, S., Khairul., & Amrina, Z. (2019). The contribution of internal locus of control and self-concept to career maturity in vocational higher education. The Firs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ducation, Science and Training: *Empowering Educational Human Resources for Global Competitiveness*, 234-248.
- Munawir, M., Yusuf, A. M., Effendi, Z. M., & Afdal, A. (2018). Internal locus of control and self-concept as factors affecting the career maturity of high school stud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Research in Counseling and Education*, 1(2), 24-31.
- Powell, K. C. (2009). The role of concept of self and societal expectations in academic and career achievement. *Journal of Adult Education*, 38(2), 32-40.
- Putnick, D. L., Bornstein, M. H., Collins, W. A., Hendricks, C., Painter, K. M., & Suwalsky, J. T. (2008). Parenting stress, perceived parenting behaviors, and adolescent self-concept in European American familie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2(5), 752-762.
- Shavelson, R. J., Hubner, J. J., & Stanton, G. C. (1976). Self-concept: Validation of construct interpretations.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46(3), 407-441.
- Wallace-Brosious, A., Serafica, F. C., & Osipow, S. H. (1994). Adolescent career development: Relationships to self-concept and identity status.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4(1), 127-149.
- Yang, L., & Wong, L. P. W. (2020). Career and life planning education: Extending the self-concept theory and its multidimensional model to assess career-related self-concept of students with diverse abilities. *ECNU Review of Education*, 1-19.

국문초록

청소년의 부모지지와 진로성숙의 관계에서 자아개념의 매개효과: 잠재성장 모형을 중심으로

전 혜 영¹ · 박 재 국²

¹부산대학교 교육발전연구소 전임연구원, ²부산대학교 특수교육학과 교수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의 한국교육종단조사 3차~6차 데이터를 사용하여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자아개념이 부모지지와 진로성숙의 구조적 관계에서 매개효과로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방법:** 분석대상은 3차에서 6차까지 부모지지, 진로성숙, 자아개념 척도에 모두 응답한 5,377명의 청소년으로 하였다. 분석방법은 Mplus를 이용하여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분석을 하였다. 분석을 통해 중1에서 고1 시기까지 종단 매개효과가 있는지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이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아개념 초기값은 부모지지 초기값과 진로성숙 초기값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효과가 있으며, 부모지지 초기값과 진로성숙 변화율에 자아개념 초기값이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지지 변화율과 진로성숙 변화율에 자아개념 변화율이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의 및 결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를 하였다. 부모지지는 진로성숙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자아개념을 매개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청소년에게 부모의 지지가 필요한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 시기의 자아개념 형성과 진로발달을 위한 프로그램과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바이다.

주제어 : 자아개념, 부모지지, 진로성숙, 잠재성장모형

투고일 : 2020. 06. 02. / 심사일 : 2020. 06. 05. / 게재확정일 : 2020. 06. 25.